

아파르(Afar) 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Afar Region)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에서 2009년 1월 6일 ~ 2009년 1월 24일까지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Afar Region)의 아와시(Awash) 및 가와네(Gawane)를 중심으로 아파르 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아프리카 지도를 살펴 보면 대륙 동쪽 끝에 코뿔소의 뿔처럼 뿔쳐 튀어나온 곳이 있다. 이 지역을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 지역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는 에티오피아(Ethiopia), 에리트리아(Eritrea), 소말리아(Somalia), 지부티(Djibouti) 네 개의 나라가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아랍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는 관문 지역으로 아프리카 땅의 남부 기독교 세력과 북부 이슬람 세력의 영적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뿔 지역에 위치한 국가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지부티, 소말리아, 케냐, 수단, 에리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높은 접근성은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효과적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반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아파르 종족은 에리트리아와 지부티, 에티오피아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에리트리아나 한국인이 접근이 어려운 소말리아까지 기독교를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세계 최빈 국가(LDCS) 중 하나로서 1달러 미만의 극빈 생활자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150만 명에 달하는 등 가난과 질병의 명에를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3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 시켜 왔으며, 나라로 약 7,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한반도의 5배 정도 크기의 면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에티오피아에서는 5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과 32%의 수출 증가 등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은 이를 증명하는 예라 하겠다. 또한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AU)’과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본부가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 대륙의 정세와 경제 동향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기구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 최근에는 빈곤 퇴치를 위해 G8, EU 등 국제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통한 활발한 대외 경제 협력과 원조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동아프리카,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티오피아가 미칠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비록 오늘 전체 인구의 30%도 넘는 수가 이슬람을 따르고 있지만, 4세기 때 복음이 들어온 뿌리가 깊은 기독교 국가로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오랜 정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회와 문화 곳곳에 기독교에 영향력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나라이다. 이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건강한 복음화의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이용한다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의 복음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 내 무슬림 종족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파르 종족은 에티오피아 내 무슬림 종족 중 하나로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에티오피아 30% 무슬림의 복음화에 매우 핵심적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의 목적

- 1) 동부 아프리카 뿔 지역의 이디오피아의 아파르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 2) 아파르 종족을 깊이 이해하여 이들의 특성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한다.
- 3) 종족의 정보와 새로운 선교 전략을 통해 아파르 종족을 섬기는 전문 사역자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한다.

3. 조사 지역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Ethiopia)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², 아와쉬(Awash), 가와네(Gawane)

4. 조사대상

2 암하릭어로 ‘새로운 꽃’ 이라는 뜻이다.

아파르(Afar)족

아파르 족은 아프리카 뿔 지역인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Eritrea), 지부티(Djibouti) 세 나라에 걸쳐 사는 유목 민족이며, 본 조사는 지부티의 아파르 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5. 현지조사기간: 2009년 1월 6일~24일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 년 1 월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대학	인터뷰 조사
	아와쉬	아파르인들, 전통 지역	관찰 조사 및 인터뷰 조사
	가와네		

6. 조사 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아프리카 현지 조사팀 8명

	이름	학부(학번)	역할
1	홍에스겔성민	글로벌리더십학부(08)	디렉터, 총무부
2	정햇님	국제어문학부(05)	문서자료부, 통역
3	김성익	글로벌리더십학부(08)	문서자료부장
4	모요셉	글로벌리더십학부(08)	문서자료부
5	조목련	생명식품과학부(06)	미디어부
6	김지성	글로벌리더십학부(08)	미디어부장, 통역
7	장의론	글로벌리더십학부(08)	예배부장
8	곽소망	글로벌리더십학부(08)	예배부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인터넷 조사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CIA, www.cia.org

Worldmap, www.worldmap.org

(2) 문헌 조사

서울신문 외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아와쉬 전통 지역

가와네 전통 지역

(2) 인터뷰

웰데 (Wolde, 30대 현지인 선교사)

오마르(Omar, 29, NGO 단체 근무)

박수일(Su Il Park, 50대 에티오피아 선교사)

조기성(Gi Sung Cho, 29, World Together 단기선교사)

아시바시(Asibasi, 50대, 아디스아바바 대학 교수)

아담 히코 아리(Adam Hiko Ari, 24, 가와네 지역 판사)

아부도 함 이루이타 (Abudo Ham Iruita, 35, 아와쉬 지역
경비원)

외 다수

(3) 문헌 조사 (목누나에게 번역부탁했는데 아직 답이 없지만..)

A study on pastoralists' education in Ethiopia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 팀이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에티오피아 아파르 종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그 동안 숨겨져 있고, 소외되어 있던 아파르 종족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본 조사팀은 먼저 에티오피아와 아파르 종족에 관해 쓰여진 많은 문헌 자료를 참고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실제 에티오피아로 건너가 아파르 인들을 인터뷰하여 조사하여, 문헌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아파르 지역의 도시 지역 뿐 아니라 아직도 종족의 전통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세 곳의 시골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당시 시골 지역에서 보고 느꼈던 현장감을 더할 수 있었다.

본 조사팀은 단기 선교 팀이 아닌 연구팀의 자격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기독교임을 밝힌 후에도 이슬람인 그들과 적대감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과 이면에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했다. 먼저 이중, 삼중 통역에서 오는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 내의 공용어는 공식적으로 영어와 암하릭어 이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에티오피아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평범한 에티오피아인을 만나 이야기 할 때에도 한국어-영어-암하릭어의 이중 통역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시골 지역에 사는 아파르 인과는 암하릭어도 잘 통하지 않아 아파르어 통역을 따로 구해야 했다. 따라서 인터뷰 때마다 한국어-영어-암하릭어-아파르어의 통역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음은 물론 통역의 과정에서 정보가 희석되고 재해석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시골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는 인터뷰보다는 관찰 조사 위주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부족했던 부분은 현지 아파르 사역자와 시골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물어봄으로써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팀은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장 조사를 마쳐야 했다는 점, 아파르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사한 것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 또한 문헌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보충함으로써 더 많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I. 들어가는 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고통과 신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력보다 먼저 눈이 가는 것은 그 땅의 엄청난 아픔이다.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 시기와 노예 무역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내전과 독재의 소용돌이를 거쳤고, 오늘날 낙후된 경제와 가뭄, 기아, 에이즈까지, 아프리카는 언뜻 보기에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땅은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프리카 땅에는 진리에 근거한 건강한 복음, 그리고 이를 통한 영적, 육체적 총체적 회복이 절실하다. 이 복음을 통한 아프리카 땅의 회복이야말로 본 조사팀의 모든 활동과 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뿔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다. 전체 인구의 약 5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복음주의 개신 기독교인의 수는 15%를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도들도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남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에티오피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가 위치해 있는 동아프리카 뿔 지역은 중동과 강경한 북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 될 시, 그 지리적 위치가 가진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30% 무슬림 인구 중에 아파르 종족이 있다. 아파르 종족은 동부 아프리카 뿔 지역에 있는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종족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파르 종족은 특히 오래 전부터 타 종족과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나 정보가 오늘날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의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종족성은 이들을 에티오피아 사회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리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게 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아파르 종족은 에티오피아 내에서 ‘위험한’ 종족으로 알려져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쉽게 그 지역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 보고서의 목적은 이렇게 복음에서 소외된 아파르 종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을 사역자들과 교회를 모으는 데 있다. 또한 아파르 종족의 복음화를 통해 에티오피아, 더 나아가 동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데에 있다. 본 보고서가 그러한 귀한 열매들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Ⅲ. 아파르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³

동아프리카 뿔 지역의 중심인 에티오피아(Ethiopia)는 지부티(Djibouti), 에리트리아(Eritrea), 수단(Sudan), 케냐(Kenya), 소말리아(Somalia)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70여 개의 종족이 이루는 82,544,840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면적은 1,127,127km²로 한반도의 5배 정도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서구 국가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 다만 1936년에서 1941년까지 5년 동안 이탈리아의 간섭 하에 있었다. 암하릭어라는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유 문자도 사용한다.

에티오피아에는 70여개의 여러 종족과 부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언어별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셈족(Semitic) 계열과 햄족(Hamitic)계열 이다. 셈족(Semitic)은 대표적으로 암하라족이 해당되고 햄족(Hamitic)에는 섬알리족, 오로모족, 아파르족이 해당된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는 아프리카 53개국이 전부 가입한 아프리카연합(AU)가 설립되어 있고,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도 소재하고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2) 정체성

아파르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와 법, 문화를 중요시 여기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그들이라도, 아파르 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파르어를 사용하고 법, 문화를 따른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긴다. 아파르인들은 과거에서부터 호전적 성격을 유지해오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해 왔다. 과거 아파르인들은 적대적인 부족 사람을 살인함으로써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명예가 높아졌으나, 현재는 부족의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어 이런 일을 예방하고

³ 위키백과, www.wikipedia.org(검색일: 2009년1월30일)

있다.

아파르 사람들은 암하릭어(Amharic)로 ‘아달(Adal)’이라고 부르며 아랍어(Arab)어로는 ‘다나킬(Danakil)’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아파르라고 불리길 원하며, 본래 아파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의 시작된 지역’, ‘인류의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아파르 족은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에리트리아와 지부티와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종교로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개종할 경우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현대화된 아파르 인들은 암하릭어(Amharic)로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지만 전통 지역으로 들어가면 아파르어를 사용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본 조사 팀이 도시 지역에 있을 때 그 곳의 아파르 인들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았지만 전통지역의 아파르 인들은 우리를 아마라 인으로 보았다.

3) 인구⁴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82,544,840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이다. 에티오피아 전체의 인구증감률은 3.212%이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이며 2,973,004명이 수도에 살고 있다. 두번째 큰 도시로는 동쪽에 위치한 디레다와(Dire Dawa)로 281,750명이 살고 있다. 이중에서 아파르 인구는 1,412,092명이고 남성 786,338명, 여성 624,75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파르 지역은 다나킬 사막에서부터 아와쉬 강까지로 낮은 인구 비율(인구 밀도는 1km² 마다 14,59명)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13,4%가 도시에 살고 있다. 아파르 지역은 5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역의 특별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구역은 앓싸이타(Asayita)를 중심 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42만 명이며 15%가 도시에 살고 있다. 둘째 구역의 중심 도시는 알바라(Abala)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평균 기온이 34도 이다. 27만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가 도시에 살고 있다. 새 번째 구역에는 아와쉬(Awash)와 가와네(Gawane) 지역이 포함되며 19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중 30%가 도시에 거주

⁴ 본 항목은 www.cia.gov 과 www.wikipedia.org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다.

한다. 넷째 구역의 가장 큰 도시는 디비나(Dibina)이고 16만 명이 살고 있고 2%가 도시에 산다. 마지막 다섯번째 구역은 정보가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35만 명이 살고 있으며 15%가 도시에 살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족은 아직도 전통 지역에 살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4) 지리⁵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27번째,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큰 나라로 면적은 1,127,127 km² 이다. 아프리카 뿔 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북쪽에 에리트리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지형은 4000m되는 산맥에서부터 해수면보다 120m 낮은 아파르 디프레션(Afar Depression)까지 서부 저지대, 서부 고원지대, 비교적 낮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동부 고원지대, 동부 저지대의 5개 지형으로 나뉜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고원이며 약 1/4의 면적을 차지하는 해발 2,000m 이상 지역에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다. 남쪽으로는 아와쉬 강(Awash river)이 있어 초원을, 북쪽으로는 사막을 이루고 있다.

5) 역사⁶

기원 전 1000년에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이 건설되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키 1세가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를 지냈다. 기원 전 600년에는 남 아라비아에서 온 이민족에 의해 악숨(Axum) 왕국이 건설되었다. 악숨 왕국에 관한 신화가 하나 있다.

과거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의 동침으로 메넬리키 왕자를 낳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왕자는 아버지인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솔로몬 왕은 아들은 성대히 환영했지만 원로들의 시샘으로 인해 왕자는 다시 돌아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원로들의 말에 동의하는 대신 그들의 딸아들

⁵ 본 항목은 www.cia.gov 과 www.wikipedia.org 사이트들과 론리플래넷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Lonely Planet Ethiopia&Erithrea)책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⁶ 위키피디아와 두산 백과 사전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또한 놀라운 생명력의 인터넷다운로드자료 www.pmsk.net/bbs/download.php?bbsMode=fileDown&code=data&id=20&filename=놀라운_생명력의.hwp을 참조하였다.

들을 메넬리키 왕자와 함께 보내기로 하였다. 이 맏아들 중에 대사제 사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계약궐을 훔쳐 에티오피아로 가지고 갔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계약궐을 찾지 못했고, 에티오피아 인들은 이 계약궐이 악숨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신화는 유대교의 유입과 에티오피아가 솔로몬의 피를 이어 받았다는 근거로 여겨 진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를 소유한 국가로, 연합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과거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1936~1941년까지 5년 동안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불법 점령을 당했고 1974년, 사회주의자 멘기투스 대령의 쿠데타로 솔로몬 왕조는 끝이 나고 공산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고 국가 내 정교회는 교회가 폐쇄되고 신도가 핍박받는 등 박해를 당했다.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해 독재 군부가 폐지되고 1992년 민주화를 맞이 했지만 1993년 에리트리아의 독립 선언으로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와 둘로 나뉘게 되었고 해상 무역 항로가 사라져 1998년 에리트리아와 다시 한번 전쟁을 치렀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수단과 소말리아에서 밀려오는 난민 문제, 공산 주의 정권에 의해 피해를 겪어온 경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자원과 인구, 외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을 꾀고 있다.

6) 요약

동부 아프리카 뿔 지역 중 하나로 에리트리아와 지부티, 수단, 케냐와 접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70여 개의 종족이 존재하며 8200만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수 많은 종족 중 본 팀이 조사한 아파르 족은 호전적 성격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때문에 종교를 개종했을 경우 아파르 사회 내에서 쫓겨나게 되며 가족과도 인연을 끊게 된다.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파르 어를 사용하고 아파르 문화와 법에 동의를 해야 한다. 반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같이 생활하며 섬길 사역자가 필요하며, 제자 훈련을 통한 내부자 전도 역시 중요한 선교 방법이 될 것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

에티오피아는 수단, 소말리아와 같은 주변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역시 오랜 내전과 짧은 민주화 역사로 인해 부정 선거, 정치 전반에 만연한 부패, 언론 탄압 등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2007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전 세계의 민주화 지수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67개국 중 106위에 위치해 있다. 이 지수에서 에티오피아는 매년 전 세계 부패지수에서 최하위 권을 맴도는 캄보디아보다도 1단계 낮은 수치이다.⁷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더불어 에티오피아 정부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와 독재적 정권(authoritarian regime)의 중간쯤 위치해 있는 혼합정부(hybrid regime) 형태를 띄고 있는 형태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⁸

2) 정치구조

에티오피아는 1995년 8월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한 이래, 수상(prime minister)이 최고의 국가 행정 권한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입법 권한은 정부와 상, 하원의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1994년 통과된 에티오피아 헌법에 의해 사법권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분리되어 있다.⁹

1994년 총선 이후, 의회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 헌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와 지방 의회가 1995년 개시된 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 때 선거에서 큰 득표를 차지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에티오피아 인민 혁명 민주 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이며, 오늘날까지 집권 정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초대 수상으로 선출된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2005년 선

⁷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INDEX_2007_v3.pdf

⁸ 매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과 같은 NGO에서는 한 국가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정치, 경제, 언론의 자유를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 세 부분의 자유화 정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한다. 가장 발전된 것부터 ‘온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혼합 정부(hybrid regime)’, ‘독재 정권(authoritarian regime)’ 순이다.

⁹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Ethiopia (검색일 2009년 2월 1일)

거까지 후 3기 멜레스 정권을 출범하였고, 에티오피아 정치권 내에서 가장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1년 10월 기르마 웰데 기오르기스(Girma Wolde-Giorgis)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한 멜레스 총리는 다시 한번 안정적 권력 기반을 재 확인 하였다.¹⁰

멜레스 제나위 총리는 리더십에 오른 직후부터 종족에 따른 지방 분권주의 정책(ethnic federalism)을 펴며 각 종족에 따라 행정 구역을 나누고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아파르 자치구는 에티오피아 아홉 개의 종족 별 반 자치 지역 중의 하나로 요즘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아파르족 출신들이 아파르 지역의 지방 정부와 관청에 많이 진출하여 행정 관료로 일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아파르 자치구의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아직도 종교(이슬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제정일치적 정치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¹¹

3) 행정구조

현재 에티오피아는 아홉 개의 반 자치 행정구역 (semi-autonomous administrative regions)과 두 개의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다. 아홉 개의 행정 구역은 부족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파르(Afar), 암하라(Amhara), 베니샹굴(Benishangul-Gumuz), 감벨라(Gambela), 하라르(Harari), 오로미아(Oromia), 소말리(Somali), 티그레이(Tigray), 남부국가 연합(SNNPR,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이 그것이다. 남부국가 연합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두 개의 특별 도시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와 디레 다와(Dire Dawa)이다.

에티오피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르 자치구는 다시 다섯 개의 행정구(zone)와 그 안에서 월다(worda)라 불리는 32개의 하부 지역구(sub-district)로 나뉜다. 그리고 그 아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케켈레(kekele)가 있으며, 각 행정 지역 단위마다 행정 수

¹⁰ 『에티오피아 개황』 (외교통상부, 2005. 12)

¹¹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가와네 부근 전통 부족 마을에서의 추장과 아파르 종족 현지 사역자인 웰데(Pastor Wolde)와의 2009년 1월 13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반이 존재한다. 아파르 지역에 존재하는 한 월다(worda) 안에는 세 개의 기관이 항상 존재하는데, 경찰서와 법원 그리고 샤리아(Sharia)라 불리는 지방 사무소이다.

4) 사법 12

사법권은 연방 최고법원에 속한다. 국회는 총리의 지명에 의해 연방 최고 법원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을 임명하며, 하원은 2/3 찬성으로 지방에 고등법원을 세울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종족에 기초한 지방 분권주의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해당되는데, 에티오피아 중앙 정부는 지방의 관습법과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해서 판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아파르 종족은 99%가 무슬림으로 아파르 공동체 내에서 이슬람의 종교법인 샤리아(Shariah)¹³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연방법이 샤리아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다처제를 비롯한 가정법(family law)의 영역에서는 샤리아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아파르 지역 내에서 한 개인이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같은 이슬람의 가정법(family law)을 연방법을 근거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샤리아법에 구속 받고 싶지 않다면, 연방법은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자유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샤리아법을 근거로 살인, 절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샤리아법이 아닌 연방 법의 구속을 받게 된다.

아파르 지역 내에서 아직 에티오피아의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골 지역일수록 샤리아 법과 관습법의 구속력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6) 치안¹⁴

치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최근 국내 반군 단체와 소말리아에서 건너온 극단주의자, 북쪽 국경

¹² 본 내용은 『에티오피아 개황』(외교통상부, 2005. 12)과 아파르 지역 월다(worda) 지역구 최고 판사(head-judge)인 아파르인 아담 히코 아리(Adam Hiko Ari)와의 2009년 1월 11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¹³ 아랍어로 ‘깨끗한 길,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무슬림들의 종교적 생활뿐 아니라 혼인, 상속, 매매 계약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범과 생활 양식을 규정하는 총체적 이슬람 법을 말한다.

¹⁴ 미국 국무성 http://travel.state.gov/travel/cis_pa_tw/cis/cis_1113.html (검색일 2009년 2월 1일)

지역의 무장 단체들이 치안의 위협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쪽 오가덴(Ogaden)지역은 거의 치안이 부재한 상태로 관광객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아파르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북쪽 국경 지대는 2000년 두 나라의 평화 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여전히 분쟁이 빈발하는 곳이다. 국경 50km 내외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지뢰가 묻혀 있으며, 납치와 무장강도 세력이 출몰하고 있다.

7) 요약

에티오피아는 90년대 초 멩기스투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민주주의의 표방하여 왔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선교 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박해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편이다.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르 지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동부 지역은 강한 이슬람권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반발이 매우 심한 지역이었고,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이슬람과 정교회의 종교적 충돌이 잦은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주의 사상과 세속 교육이 조금씩 보편화 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과 정교회인, 기독교인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¹⁵ 이러한 특징은 도시 지역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파르 지역은 에티오피아 연방의 행정 구조에 편입되어 있지만, 도시를 벗어난 외곽 시골 지역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외곽 시골 지역의 정치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시골 지역일수록 정치적 구조와 공동체 의사 결정 방식에 있어서 아파르 종족의 전통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시골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이슬람 규범과 법의 구속력이 강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선교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3. 사회분야

1) 개요

아파르 종족의 가족 구조 및 공동체 구조 등의 사회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아파르 종족이 반 유

¹⁵ 2009년 1월 5일 박수일 선교사와 아파르 종족 현지 사역자인 웰데(Pastor Wolde)와의 2009년 1월 9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목민족(semi-nomadic)이라는 점과 무슬림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반 유목민족이란 유목생활과 농경 생활을 병행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즉, 가축을 키우며 물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되, 정착한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키운다는 뜻이다. 이러한 반 유목민족적 특성은 아파르 종족의 공동체 구조와 타 종족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대부분의 아파르 인들이 무슬림이라는 점은 오늘날 아파르 종족의 가족구조 및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다처제와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2) 가족구조

아파르 종족의 가족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샤리아법의 ‘일부다처제’를 근간으로 한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한 남성은 네 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으나, 여러 부인을 두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파르 공동체에서 한 남편의 부인이 두 명 이상 될 경우, 부인들은 한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각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실제로 본 조사 팀이 아파르 시골 지역을 방문 하였을 때, 한 남편의 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기 쉽지 않았다.

3) 종족 공동체 구조¹⁶

아파르 종족의 리더십은 씨족을 중심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단위 공동체 별로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케도 아바(Kedo Aba)라 불리는 각 씨족의 최고 지도자가 있다. 케도 아바의 다음 후계자를 달라 아바(Dala Aba) 혹은 다발라 아바(Dabala Aba)라고 부르며, 젊은 층 지도자를 페이마 아바(Fei'ma Aba)라 부른다. 이 외에도 가족의 연장자 그룹 또한 아파르 종족 내에서 지도자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공동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위에서 언급한 지도자들과 공동체 내의 연장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씨족간 분쟁이나 다툼을 예방한다.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아파르 종족은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호전적이며, 독립적인 종족

¹⁶ 본 내용은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가와네 부근 전통 부족 마을에서의 추장과의 2009년 1월 13일 인터뷰 내용과, 『The Role of Indigenous Institutions in Pastoral Livelihood Strategies in Ethiopia』 (Ethiopian Economic Association, www.eeaecon.org)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아파르 종족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이 인류의 기원이 된 종족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자부심이 아파르 종족이 주변 타 종족과의 융화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파르 종족은 전통적으로 가축들을 위한 물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풀이 부족한 건기 때가 되면 에티오피아의 다른 유목 민족이나 아파르 종족 내 다른 씨족들과 분쟁의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분쟁의 빈도는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물과 목초지로 인한 아파르 종족과 타 종족과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본 조사님이 2009년 1월 13일 아파르 지역 가와네 농업 기술 대학교(Gawane Agriculture and Technology University) 방문했을 때, 당시 가와네 근처 시골 지역에서 아파르 유목민들과 위잠 종족의 유목민들간의 물과 목초지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무력 충돌로 인해 약 다섯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아와쉬(Awash) 지역에서는 아파르 유목민들과 오로미아 종족의 유목민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5) 여성의 역할¹⁸

아파르 여성은 아파르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아프리카 대부분의 유목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다. 특히 오랫동안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아파르 종족에게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파르 종족 내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이혼 시에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에 반해 집을 짓고, 가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요리, 청소와 같은 집안일은 거의 여성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아내 구타, 계약 결혼, 여성 할례 등과 같은 아파르 종족의 악습에도, 아파르 종족의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아파르 지역이 도시화되고, 교육이 점차 보편화 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지만, 아파르 종족 내 여성의

¹⁷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수일 선교사님과의 2009년 1월 5일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¹⁸ 본 내용은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가와네 부근 전통 부족 마을에서의 추장과의 2009년 1월 13일 인터뷰 내용과, 『The Role of Indigenous Institutions in Pastoral Livelihood Strategies in Ethiopia』 (Ethiopian Economic Association, www.eaecon.org)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권리나 역할이 향상되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오늘날에도 여성 할레나 계약 결혼과 같은 관습은 여전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6) 요약

아파르 지역 내에서도 거주하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구조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아와쉬나 가와네 같은 큰 도시에 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아파르 인들은 아파르 종족의 전통적 사회 관습에 비교적 크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 반 유목민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르 인들에게 사회의 위계 구조,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에서 아파르의 전통과 풍습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 아파르 종족은 자부심이 강하고 타 종족에 대한 개방성과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종족의 전통과 풍습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융화적인 태도가 종족 선교에 효과적일 수 있다.

3. 경제분야

1) 개요¹⁹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 인구 대국이며 1인당 국민 소득이 110불인 세계 최빈국(LDCS) 중 하나이다. 오랜 내전과 가뭄, 높은 인구증가율은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멜레스 정권은 농업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늘날까지 낙후된 유통 체제와 미비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정치,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파르 종족은 경제적으로도 에티오피아 국가 경제의 영향권 안에서 거의 벗어나 있다. 아파르 종족 중 교육 받은 소수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기도 하지만, 아파르 종족은 전통적으로 가축과 농업, 오늘날에는 특히 목화 농업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2) 산업구조

17만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물웅덩이를 찾으며 유목민 생활을 한다. 에티오피아의 GDP 중 농업이 47%를 차지하고

¹⁹ 외교통상부 개황 참고

있다. 농업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인구의 39.8%는 서비스에서 종사한다. 산업은 13.2%로 에티오피아에 가장 작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에리트리아 항구를 통한 수출입이 금지되어 GDP에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부티와 수단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다. 서비스는 도매상, 소매상, 교통과 통신이 있는데, 서비스 분야를 거의 전적으로 차지하는 게 관광 서비스이다. 농업 분야는 GDP에서 점 더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 가뭄, 그리고 비 효율적인 농업 숙련이 성장을 멈추고 있다.

지역과 종족의 주요산업: 전통 산업, 현대화에 따른 변화, 1,2,3차별 비중, 종족의 경제 동향, 종족의 주요직업, 소득원(월수입)

3) 발전수준

물가, GNP, 지출 분야

주요 지역별 발전수준: 도시, 농촌

경제 불평등: 타 지역 같은 종족간의 불평등, 종족간 불평등, 지역별 비교

현재 진행중인 공공산업 유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4) 주요산품

에티오피아는 농업과 가축을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제일 많은 가축 수가 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GNP가 약650만 달러로, 세계에서 9번째로 가장 빈곤한 국가다. 나라의 노동력의 80%가 농업에 의존한다.²⁰ 농산품 중에 커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06년에는 약 3500만 달러의 수출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커피의 생산력은 흔한 가뭄, 낮은 가격과 낙후한 농업 기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 특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특하게 민간 부문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위주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²¹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은 외국의 관심과 투자를 끌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에티오피아는 빨리 증대하는 인구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²⁰ <http://en.wikipedia.org/wiki/Ethiopia/Economy>

²¹ <http://en.wikipedia.org/wiki/Ethiopia/Economy>

생산물, 공예품, 천연자원
농업품: 변화, 자급도, 식생활과의 관계
공산품: 공산품의 사용, 주요 판매처

5) 요약

에티오피아는 푸르른 산지와 고산지대라는 특징 등으로 아프리카 치고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면하지 못한 국민성과 체계적이지 않은 국가 정책 등으로 최빈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 구걸하는 인파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여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경제분야에 대한 특징 요약
선교적 의미 설명

5. 생활분야

1) 개요²²

아파르 종족은 대부분 양과 염소, 낙타 등을 몰며 살아가는 유목 민족이다. 여성들은 가축들을 돌보고 거주지인 아리(Ari)를 만들고 관리한다. 남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동 할 때 가축과 거주지인 아리(Ari)를 거둬들여 이동시킨다. 남성들은 그가 소유한 가축 때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부자인지 평가되며 가축을 기르는 일 외에도 다나킬 사막(Danakil Depression)지역에서 천연 소금을 캐거나 도시에 거주해 직업을 갖기도 한다.

2) 식생활²³

식생활에 있어서 도시 지역과 시골지역의 음식 문화는 차이를 가진다. 도시 지역은 아파르 인들 이외의 오로모, 아마라, 감바타 등 여러 종족들과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종족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는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을 먹는다. 본 조사 팀이 에티오피아에서 접한 현지 음식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음식은 인젤라(Ingela)와 같이 나오는데, 한국의 흰 쌀밥과 같은 에티오피아 인들

²² www.joshuaproject.net 본 항목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²³ www.joshuaproject.net 본 항목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의 주식이라고 보면 된다. 인젤라(Ingela)는 얼핏 작은 담요 같이 생긴 시큼한 빵인데, 인젤라(Ingela)와 함께 나오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그 메뉴의 이름이 결정된다. 케이왓(Key wot)는 빨간색의 양념에 양고기나 염소, 소고기에 버무려 나온다. 알리카왓(Alika wot)은 케이왓(Key wot)과 비슷한 종류로 덜 매운 양념과 함께 고기가 같이 나온다. 뽕스(Tipps)는 소고기를 익혀 기름기 많은 국물과 인젤라가 같이 나오는 음식이다. 미니스토리(Ministory)는 국물과 인젤라(Ingela)가 같이 나오는데 국물 안에 인젤라(Ingela)를 넣어서 먹는다. 시로(Siro)는 콩을 갈아서 스프같이 나오는데 인젤라를 거기에 찍어 먹는다.

전통 지역의 아파르 인들은 주식으로 고기와 우유를 먹는다. 특히 우유는 손님 접대로 용으로 사용되는데, 염소나 낙타, 소에서 바로 짠 우유를 주스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이 좋을 경우 염소를 선물로 받을 수도 있다.

아파르 인들은 캣트라고 불리는 풀을 씹는데,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씹으면 힘이 솟는다고 믿고 있다. 참고로 아파르 인들은 다른 에티오피아 인들과 달리 생고기를 먹지 않는다.

3) 의복²⁴

전통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옷을 입지 않고 목걸이를 하고 있다. 반면에 결혼한 여자는 옷을 입고 곁에 샤쉬(shash) 또는 무샬(mushal) 이라고 불리우는 검은 두건을 두른다. 전통 지역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된 줄무늬의 티를 입고 있고 하의는 빨간색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다.

남자의 경우 결혼 전 남성과 결혼 후 남성의 의복은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흰색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 흰색 천의 끝부분은 다른 색깔로 모양을 낸다.

남자 여자 모두 허리에 천을 두르는데 사나필(sanafil) 이라고 부른다. 여자는 보통 갈색으로 염색된 천인데 요즘의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색깔의 사나필(sanafil) 을 입고 남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흰색의 염색되지 않는 천을 입는다.

²⁴ www.xplore360.com/ 본 항목은 사이트의 아파르 사람들의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주거²⁵

아파르 인들이 거주하는 집은 달걀 모양으로 아리(Ari)라고 불린다. 아리(Ari)를 만드는 것은 여자의 역할로 만드는 방법은 나무를 깎아 여러 개의 긴 막대기를 만들어 그것을 휘어 달걀 모양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야자나무로 만든 돛자리로 덮어 집을 만든다. 여름에는 돛자리를 걸어서 바람을 통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돛자리를 덮어 집 안의 보온을 유지한다. 집 밖에는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형 모양으로, 가시 나무로 만든 바리케이드를 쳐 놓는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풀과 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동할 때 집도 같이 가지고 가며 바리케이드는 원래 지역에 그대로 두고 간다.

5) 위생의료²⁶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는 국립 병원이 5곳,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민간병원은 8~9개뿐이다. 수도권 인구 600만명이 이용할 병원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 명성 제단에서 세운 명성병원이 있지만 치료비 문제로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체 인구를 보더라도 46% 만이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부족한 의료 상황은 에티오피아를 세계에서 16번째로 AIDS/HIV 감염(15~49세 인구의 3.8% 감염)국으로 만들었고, 그 이외에도 연평균 4백~5백만 명이 말라리아를 앓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의 평균 수명(2004)은 48세(남 47.1세, 여 49.0세로) 아프리카 평균수명인 52세보다 현저히 낮다.

본 조사팀이 조사했던 가와네, 아와쉬의 전통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은 고사하고 우물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아파르 인들은 흙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그 물로 씻고, 모든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질로 인한 수인성 질병에 걸리기 쉽다.

²⁵ www.joshuaproject.net 본 항목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²⁶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UNAIDS, <http://www.unaids.org/>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www.segye.com, 세계 일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마을에는 전통 의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 요법으로 하는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이들은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반 유목민이기 때문에 현대식 교통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 명이서 짚으로 만든 판 위에 아픈 사람을 놓고, 머리에 이고 걸어서 도시 지역으로 나간다.²⁷

6) 환경²⁸

주기적인 가뭄으로 에티오피아 전체는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유목민인 아파르 인들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흙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물로 씻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르 지역에는 프로소피스(나무이름, Prosopis)가 존재한다. 이 나무가 자랄 때는 주위에 물이 존재할 수 없다. (자료 추가)

에티오피아 인들의 5% 만이 전기를 사용한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24시간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주 끊기고, 밤에 사용할 수 없다.

7) 여성²⁹

아파르 사회에서 여성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성은 신이 남자를 위해서 준 물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NGO같은 외부 단체가 들어와 여성의 인권에 대해 교육해주고, 외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회의를 할 때 여성의 발언권도 다른 멤버와 같이 존중되고, 아파르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외부와의 교류가 되는 곳이고 전통 지역을 아직도 낮은 여성 인권과 여성할례등 악습이 계속 되고 있다.

²⁷ 본 항목은 NGO 단체인 Care International Awash Office에 근무하며 아파르 전통 지역에 교육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오마르와의 1월 18일 날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였다.

²⁸ 본 항목은 과거 아파르 전통 지역에 거주했던 아보 투틀리 마데르투씨의 1월 16일 날 인터뷰 자료를,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수일 선교사님과의 1월 5일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²⁹ 본 항목은 가와네 시골지역 아파르 추장과의 1월 13일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오마르가 도움을 주는 곳의 추장이시다.

8) 대중매체 보급률³⁰

에티오피아는 1992년 민간 신문 발간을 허용하는 언론법이 통과된 이래로, 수많은 민간 신문사와 잡지들이 붐을 이루며 발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극심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 언론 활동은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것은 2005년 대선 이후 심화되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모든 인쇄소가 수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수도 아디스 아바바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비단 인쇄물에만 그치지 않고 방송 언론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개의 라디오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국은 모두 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사이트의 접속이 강제적으로 차단되기도 하였다.

주요 언론사로는 암하릭 언어로 된 신문사인 ‘Addis Zemen’과 영어로 된 ‘The Ethiopian Herald’가 있다. 방송사로는 ‘Ethiopian Television’이 있는데 모두 정부 소유이다.

전통 아파르 인들은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전기조차 공급받기 어렵다. 때문에 대중매체를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9) 교통³¹

에티오피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약 거주자 1800명당 자동차 한 대일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자동차 보급률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차를 구입하는데 세금이 높기 때문에 거의 본 가격의 2배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한다. 버스 서비스도 지방과 수도를 잇는 노선만 발달되어 있어 에티오피아 물품 유통과 운송의 절반은 아직

³⁰ 미국 국회도서관, <http://countrystudies.us/ethiopia/133.htm> (검색일 2009년 2월 6일)

³¹ 본 내용은 Encyclopedia of the Nations: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frica/Ethiopia-TRANSPORTATION.html> (검색일 2월 4일)과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결연 아동 봉사를 하고 있는 조기성 형제와의 1월 7일 인터뷰 내용을 참고 하였다.

도 동물을 이용한 운송수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 소도시 지역에는 삼륜 자동차와 말을 이용한 마차가 존재한다. 본 조사팀이 아와시 지역에 있을 때 거리의 삼륜 자동차와 마차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 에티오피아 무역이 있어 중요한 중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웃 나라 지부티(Djibouti)와는 880km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바로(Baro)강도 주요한 운송 경로가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항은 약 14-15 곳 정도이며, 이곳 중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공항을 통해서만 국제 항공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통 아파르인 들에게 현대식 교통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축들은 교통 수단보다는 짐과 물을 옮기는 데 사용된다. 물 같은 경우는 여자가 당나귀와 낙타와 함께 물이 있는 곳으로 가 물을 떠온다.

10) 요약³²

유목민족인 아파르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에 살며 오랜 가뭄에 따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인구 절반이 절대빈곤 상태) 이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율 또한 높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상당한 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위 조사를 토대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식수 및 식량 공급과 AIDS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은 중요한 선교 전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6. 문화분야

1) 개요

에티오피아의 문화에는 종교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다양한 종교로 인해 오는 갈등은 없다. 정교회의 기념일에도 이슬람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아파르 족의 문화는 그들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통 문화와 이슬람에서 비롯된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 되어 있다. 전통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종교가 그들의 삶

³² 외교통상부의 에티오피아 개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의 기준이 된다.

2) 예술

전통미술은 주로 종교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현대미술가도 이 전통을 따른다. 그러나 과거에 미쳤던 종교의 영향은 사회적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디스아바바에는 유명한 고고학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도서관이 있다.

3) 특수 절기

에티오피아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의 큰 행사가 있다. 3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영향으로 생겨난 행사이고 하나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생겨난 행사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1월 7일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1월 19일 팀캣(Timkat)이다. 마지막 하나는 9월 28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마스크(Meskel)이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축제로는 라마단이 있다. 10월 12일에 시작을 해서 12월 19일에 마친다. 1년 중 가장 큰 무슬림의 행사는 라마단의 끝을 기념하는 ‘이드 알 파트’이다.³³

에티오피아의 달력은 그레고리안(Gregorian) 역법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우스 역법(Julian Solar Calendar)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날짜와 다르다. 우리보다 년도는 7년이 늦어져 있고, 12달이 아닌 13달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새해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1일이다. 참고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다.³⁴

(1) 크리스마스³⁵

³³ <http://www.compassion.or.kr/> 본 항목은 한국컴패션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³⁴ <http://www.seoul.co.kr/news/> 본 항목은 서울 신문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³⁵ <http://www.seoul.co.kr/news/> 본 항목은 서울 신문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에티오피아 크리스마스는 에티오피아력으로 1월 7일이다. 아마릭어로 ‘제나’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면, 전날부터 교회에 모여 낱을 세우며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당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온다.

(2) 예수 공현일

이 날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아마릭어로 팀캣(Timkat)이라고 부르며 사제들이 거룩한 법체인 타봇을 모시고 행렬을 합니다. 원판인 법체는 악숨에 있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판으로 재현을 한다. 타봇은 불경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명주실로 수놓은 천과 금, 은으로 덮여 있다. 행렬 후에는 타봇을 특별한 텐트 안에 놓고 밤을 세우면서 하루 동안 기도를 한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사제들이 하는 것인지 사람들 서로서로 하는 것인지 헷갈림.)³⁶ 팀캣은 공식적으로 3일 휴일을 주는데 대부분 일주일 정도 축제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3) 마스칼(Meskel: “The Finding of the True Cross”)

마스칼(Meskel)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을 기념하는 날로 9월 28일이다. 이것의 기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병자들이 십자가를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버렸다. 십자가는 버려진 후 4세기 콘스탄틴(Constantine)대제의 어머니 헬레나(Helena)가 발견하기 까지 무려 300년 이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묻혀있었다. 327년 헬레나는 십자가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키리아코스(Kiriakos)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장작을 모아 그것을 쌓고 향을 얻어 태우면 연기가 흘러갈 텐데 연기가 멈추는 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연기가 멈춘 곳을 팔고 마침내 9월 28일 날 이 십자가를 찾을 수 있었다. 마스칼은 중

³⁶ 놀라운 생명력의, 인터넷다운로드자료

www.pmsk.net/bbs/download.php?bbsMode=fileDown&code=data&id=20&filename=놀라운_생명력의.hwp

교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이 참여하며, 큰 도시 지역에서는 마스칼이라는 광장 있는데, 이곳에서 축제를 시작한다. 손에 쥘 정도로 나뭇가지를 묶은 치보와 장작을 광장 중앙에 놓는다. 그리고 정교회 사제들은 노래를 부른다. 6시 경에 광장 중앙에 있는 나뭇가지를 태우는데 다 탄 후에 주민들은 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돌아 간다.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다른 나뭇가지를 모아 새벽까지 축제를 즐긴다. 마스칼이 가까워 지면 거리의 아이들은 노란 꽃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꽃은 받은 사람은 몇 푼의 돈을 나누어 준다.

(5) 라마단(라마단 종료일:이드-알-피트르)

무슬림의 기념일인 라마단은 35%가 무슬림인 에티오피아에도 해당된다. 라마단 동안에는 아침 동트는 시간부터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금식을 한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담배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생활도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다섯 번 모스크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오고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린다.³⁷ 금기 사항들은 신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신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속죄하고 신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³⁸

(6) 아파르 인의 기념일³⁹

아파르 인들에게는 종교적 기념일과 전통적 기념일이 있다. 종교적 기념일에는 이드 알 아드하, 이드 알 피트르, 모하메드 생일이 있다. 이드 알 아드하는 희생제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드 알 피트르는 라마단의 종료일에 행해지는 행사로, 축제로 행해진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식은 남성의 성인식과 결혼식이다. 남성의 성인식의 의미는 교육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드러낸다. 시기는 7~8살로 이 때 할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결혼 세레모니가 있다. 남자 성인 식이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선생님(Academic

³⁷ http://www.ohmynews.com/NWS_Web/

³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³⁹ 본 항목은 Care International NGO단체에서 일하며 아파르 전통 지역에서 근무하는 오마르와의 1월 18일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였다.

Teacher)이 공동체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이 코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4) 결혼과 장례, 출산

(1) 결혼⁴⁰

아파르 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압수마라는 전통 문화 때문이다. 압수마는 아파르 결혼 문화를 지칭하는 말로 남성의 아내는 자신의 고모나 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는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파르 사회에서의 낮은 여성의 지위로 인해 여성의 결정권은 거의 없다.

결혼을 할 때 신랑 쪽에서 집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돈, 약 1000비르,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3만원 정도를 신부 쪽에 준다.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돈을 준다. 남성은 약혼을 할 때는 약속의 증표로서 가축 1마리를 주고, 결혼을 할 때 가축 2마리를 준다. 이것은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남성은 보통 18세에, 여성은 15세에 결혼을 하며 남자의 집안이 부자일 경우 15세에 결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여성은 결혼 전에 머리를 세 갈래로 꼬고 있다. 꾸미는 장식구는 작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며 고정시키는 역할은 소의 배에서 나오는 지방을 사용한다. 지방은 고기를 먹을 때 얻는다. 결혼 후에는 머리를 동그렇게 한다. 결혼 후에는 완전한 전통 지역이 아닌 이상 모리 모양에 그렇게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2) 장례⁴¹

결혼식은 아파르의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장례식은 이슬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에 바로 시체를 닦아 무덤에 묻는다. 시체 닦는 것은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하고 시체를 돌리는 도우미 들도 있다. 우선 비누로 시체를 칠하고 어떤 특정한 나뭇잎과 섞어서 만든 물로 행군다. 씻고 나면 흰 천으로 몸을 전

⁴⁰ 본 항목은 아파르 전통 지역에서 생활하셨던, 아파르 인인 아보 투틀리 마데르투와 Akilugi girma의 1월 13일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였다.

⁴¹ 선교지역연구보고서 5, (CIAS 2008)

체적으로 감고 향수를 뿌린다. 그 후 모스크로 옮겨져 기도를 드린 후에 무덤으로 옮겨서 묻는다.

5) 요약

아파르인들의 문화를 살펴 보면 이슬람의 문화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와 융합되어져 있다. 이슬람의 기념일과 아파르 족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었으며 결혼과 장례의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 결혼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장례는 이슬람 식으로 지내고 있었다. 이미 삶 속에 이슬람의 영향을 깊게 내려져 있어 선교가 많이 힘들 실정이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물질 선교와 교육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9. 교육분야⁴²

1) 개요

아파르족은 유목민,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교육을 꺼려한다. 대신 종족 내에서 코란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만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습득한다. 이러한 아파르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2) 현황

2006~2007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전체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약 98%인데 반해 아파르 종족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아파르 종족이 총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부티에서 70%의 초등학교 진학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 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⁴³ 에티오피아 전체 문맹률은 약 60%이고, 지부티는 약 50%인데 현재 아파르 종족은 10% 정도, 특히 유목 생활을 하는 아파르족은 약 2% 정도로 추산된다.⁴⁴

아파르 종족의 교육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파르 종족이 반 유목민이라는 특성상 정기적으로

⁴²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아시바시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분은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동아프리카 교육 리서치 팀의 리더였다.

⁴³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3권 2호 (2008년 가을호)p352

⁴⁴ 에티오피아 개황(외교통상부, 2005),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3권 2호 (2008년 가을호) p352, APDA, <http://www.apdaethiopia.org>, (검색일: 2009년 1월 30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학교에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아파르 종족의 유목민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동 스쿨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파르 종족이 무슬림 또, 에티오피아의 국립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인데 아파르족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개종의 위협으로 학교 보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아파르족의 사회 교육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목민족이 사는 곳에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의 설립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언어인 암하릭어를 공용어로 채택해 교육을 펴고 있다. 이 암하릭어는 아파르족에게 외국어나 다름이 없어서, 암하릭어로 가르치는 지역의 도시나 마을들의 학교에서는 아파르 목동이 교육을 받기 힘들다.⁴⁵

학교 수: 종족별 민족학교, 유치원 교육 등 (도시 통계자료 구입 추천)

교육 정책: 의무교육, 교육 부담

마을별 현황: 학교, 학생, 선생님 수, 성비, 과목

3) 일반교육⁴⁶

교육 지출은 2006년 통계로 GDP의 6%를 차지한다.⁴⁷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학교당 이상적인 학생수가 1500명 정도인데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현실은 학교당 학생수가 무려 7000명에 달한다.⁴⁸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는 10학년 까지 무료 교육이어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⁴⁹ 도시에 사는 아파르족 중 어떤 사람은 교육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모습을 토대로 종교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등을 중시하여 교육을 생각하는 개방적인 추세를 느낄 수 있다.

⁴⁵ APDA, <http://www.apdaethiopia.org>, (검색일: 2009년 1월 30일)

⁴⁶ 아부도 함 이루이타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⁴⁷ CIA, <https://www.cia.gov>, (검색일: 2009년 1월 30일)

⁴⁸ 에티오피아 개황(외교통상부, 2005)

⁴⁹ 아시바시 교수님이 말한 내용이다.

⁵⁰ 아부도 함 이루이타가 말한 내용이다. 자식이 개종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문화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교육을 못 받아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자식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4) 가정교육⁵¹

일반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종족 정체성을 유지한 아파르족은 종족내 가정 교육을 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말하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코란을 배우기 시작한다.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려 하지만 수질 상 황 등이 열악하여 코란만 배운다. 주로 나무 아래에서 비공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지역 내에서 코란을 가르칠 사람을 뽑아서 가르친다. 유치원생들을 코란학교에 2년 정도 보내서 무슬림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서 정부 수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파르족 사람들 중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아랍 방면으로 유학을 가기도 한다. 아랍 지역이 부유해서 장학금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파르 지역 공동체에서 돕기도 한다.

아파르족의 가정 교육은 주로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주로 배운다. 남자아이들은 3~4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축을 기르는 것과 집을 지키는 것을 배운다.

5) 요약

교육은 모든 분야를 습득하는 통로가 되고,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사회로 나가는 첫 관문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선교 활동이 용이하다. 시골에 있는 아파르족이 예상과 다르게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족적으로 코란을 배우는 것보다 국립학교를 가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슬람의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장점을 살려서 선교에 연결해야 한다.

10. 종교분야

1) 개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나라로서 4세기에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⁵² 종교분포를 보면 기독

⁵¹ 시골지역 추장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⁵² 사도행전 8장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를 보면 그 전에

교 66.02%(개신교 18.59%, 독립교회 0.18%, 카톨릭 0.67%, 정교 57.54%, 유사기독교 0.03%, 미등록 0.10%, 이중집계 ·12.10%) 이다.⁵³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동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이슬람의 역사 또한 오래 되었다.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하던 당시 그의 친척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오면서 이슬람을 전파했고, 세력을 형성하여 지금도 많은 종족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⁵⁴ 이슬람 세력은 기독교 세력과 충돌하기도 하였다.⁵⁵ 에티오피아에서 무슬림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한다.⁵⁶ 아파르 종족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종족으로서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2) 종교현황⁵⁷

에티오피아의 제 1종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은 전체인구의 57.54%이다. 20000개의 교구가 있고 2천 1백만명의 교인(등록한 교인일 듯)과 3천6백만명의 신도(믿는 사람)가 있다. 개신교는 전체인구의 18.59%를 차지하고 1천1백만명의 신도가 있고, 독립교회, Mekane Yesus Church, kale heywat church 등의 여러 교파들이 있다.

제 2종교는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슬림들은 전체인구의 31%인 19395000명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3.1%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파르족은 거의 100%가 무슬림으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전에는 애니미즘과 같은 토속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이 전파되었다.⁵⁸ 이들은 마을마다 보통 한 개씩 모스크를 갖고 있다.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볼 수 있다.

⁵³ 기도24,365(<http://www.prayer24365.org/>)의 세계기도정보 중 에티오피아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⁵⁴ ETHIOPIAN CIVILIZATION(1992년, BELAY GIDAY지음)에서 인용

⁵⁵ World map, <http://worldmap.org/> (검색일: 12월 24일)

⁵⁶ 기도24,365(<http://www.prayer24365.org/>)의 세계기도정보 중 에티오피아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⁵⁷ 본 항목은 World map, <http://worldmap.org/>의 에티오피아 프로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⁵⁸ 가와네지역의 전통생활을 유지하는 마을의 주장과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전체 인구의 2.98%을 차지하여 1864000명의 사람들이 토속신앙을 갖고 있다. 토속신앙 인구는 해마다 -7.1%의 성장률을 보인다.

3) 종교특징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 역사가 오래되고 다른 교회들과 단절되었던 세월만큼 그 지역에 있었던 토속신앙과 많이 혼합되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성상을 숭배하는 대신 성화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예배는 개신교 예배와 달리 구약의 예배 형식을 많은 부분 모방한다. 사람들은 성소로부터 격리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신성한 지혜와 빛이 세상으로 오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둔다.⁵⁹

아파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아파르족의 이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아파르족이 믿는 이슬람은 토속신앙과 결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프리카 전통의 영향으로 동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 아파르족에 있었으며, 이것이 이슬람과 혼합되었다고 주장한다.⁶⁰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아파르인들이 이슬람이 들어 온 후로는 순수한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아파르 무슬림들도 자신들이 순수한 이슬람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파르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유일신 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⁶¹ 이런 유일신 사상이 아파르로 하여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일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론이생각)

4) 종교지도자

보통 마을마다 한 명의 이맘이 있다.⁶² 한 마을에 모스크가 한 개 이상일 경우, 각 모스크마다 이맘이 한 명 이상 존재한다. 모스크는 보통 마을마다 한 두 개씩 있는데, 그 마을이나 도시에 사람이 많고, 모스크를 더 지을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이 짓기도 한다. 예를

⁵⁹ 위 내용은 World map, <http://worldmap.org/> 의 에티오피아 프로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⁶⁰ 위 내용은 World map, <http://worldmap.org/> 의 에티오피아 프로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⁶¹ 아파르 종족이며 아파르 문화를 연구하는 살리 모하메드 하산(Salih Mohamed Hassan, 39세)은 원래 아파르 종족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으며, 현재는 100%가 이슬람이라고 주장했다.

⁶² 이맘은 보통 기도할 때 앞에 서서 기도를 이끈다.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씩 아잔소리가 울릴 때,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 아잔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나, 여건이 안 될 경우, 이맘이 대신 하기도 한다.

들어 아와시 지역에는 모스크가 4개가 있다고 한다.⁶³ 모스크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다. 도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모스크건물이 있으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통유목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돌로 모스크를 짓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도시에 있는 모스크를 찾아 기도를 드린다.⁶⁴

도시에서 이맘을 선출할 때는 모스크의 장로들이 모여서 뽑는다. 보통 코란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즉 ‘알 아즈 하르(al ashar)’ 같은 이슬람대학교에서 코란과 이슬람 전통을 공부하여 잘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을 뽑는다. 이맘을 뽑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코란을 읽을 줄 알고, 기도를 잘 하고, 착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데 특히 목소리가 중요하다.⁶⁵

5) 요약

에티오피아 내에는 가장 큰 종교집단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 이슬람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외부와 오랫동안 단절되고 토속신앙과 결합하면서 혼합적인 요소가 많다고 한다. 기독교 개신교는 최근에 성장하는 추세이며, 많은 선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파르가 믿는 이슬람교는 현재 빠른 속도로 에티오피아 내에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아파르족이 믿는 이슬람교는 그들의 토속신앙과 결합하였다고 한다. 아파르족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다른 종족들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한다.⁶⁶ 하지만, 우리가 보고 온 아파르 이슬람에서는 토속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1.기독교 상황

1) 기독교 개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국가이다. 무슬림들도

⁶³ 위 내용은 에티오피아 내의 NGO단체인 FGC에 속한 오마르(26, 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⁶⁴ 위 내용은 “선교지역연구보고서5”의 내용과 NGO 단체 FGC에 속한 오마르(26, 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⁶⁵ 본 항목은 7월18일 지부티 시티에서 역사가 모하메드 이브라임 세호(Mohamed Ibrahim seho, 25, 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선교지역연구보고서5” 중 지부티 아파르종족을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⁶⁶ World Map, <http://worldmap.org/> (검색일: 2009년 2월 2일)

많은 편이지만, 기독교인구가 더 많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큰 편이다. 기독교를 믿는 아파르인은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이슬람을 믿는 종족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에티오피아 내에서 예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도시화된 마을이나 국도 주변에 사는 아파르족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편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이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이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2) 기독교 현황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고, 기독교국가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이슬람을 믿는 종족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아파르 종족은 현재까지 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⁶⁷

현재 아파르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있으며, 아파르어로 더빙한 예수영화도 존재한다.⁶⁸ 또한 에티오피아 내에 아파르족을 상대로 아파르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라디오방송국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사람이 지부티로 이동하여 라디오로 복음전파 사역을 하고 있다.⁶⁹ 또한 아파르지역에 속하는 아와시 지역 주변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다. 비록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아파르족이 아닌 다른 종족이지만, 폐쇄적이라고 알려져있던 아파르족의 지역 내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3) 기독교 인식

다른 국가들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슬람을 강하게 믿는 아파르족들이 사는 아파르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어울려서 산다. 서로 친구이고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교육

⁶⁷ 위 내용은 현지 사역자 웰데(Welde, ?세, 남)목사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⁶⁸ <http://www.inspirationalfilms.com/av/watch.html>에 가면 재생기를 설치 후, AFAR를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다.

⁶⁹ 위 내용은 현지 사역자 웰데(Welde, ?세, 남)목사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을 받거나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고, 무슬림이 개종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거나, 종교적인 질문을 하면 민감하게 변한다. 따라서 아파르족이 점점 기독교에 대해 인정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지라도, 개종이나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안 열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⁷⁰

4) 요약

아파르족이 기독교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의 다른 종교로서 존중하고는 있지만 기독교는 남의 종교라는 생각을 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과 서로 어울릴 줄 알고,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처한 위생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⁷⁰ 위 내용은 현지 사역자 웰데(Welde, ?세, 남)목사님과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IV.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현재 이슈들

1. 깨끗한 생활 용수의 부족

아파르 인들은 전통적으로 반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다. 도시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아파르 인들은 반유목 생활을 한다. 이들은 한 달에 한번 거처를 옮기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한다. 물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풀은 가축과 생활에 사용되기 때문인데 아파르 지역의 환경은 물과 풀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남쪽의 아파르 인들은 아와쉬 강을 통해 물을 공급받지만 북쪽의 아파르 인들은 사막 환경에 살고 있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물을 찾더라도 대부분 식수로 사용하기 더러운 물이다. 전통 지역에서 생활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들이 물 문제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아파르 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동하지만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온다. 이동을 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르 인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우물을 효율적인 장소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통 아파르 지역에 사역자가 생활하기 수월해지고, 아파르 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2.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및 시설의 부재

전통 지역의 아파르 족이 받는 교육은 대부분 코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유목 생활로 인해 정식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뿐 더러, 도시와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동학교 정책을 추진했지만 교사 고용과 학교 건축비 등의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되어 아파르 족의 교육의 문은 좁아졌다. 외부에서 교사가 들어 오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전통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원활히 해결할 수 없어, 아파르 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교육 받은 아파르 인들은 다시 전통 지역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종족 사회 내에서 코란 교사를 뽑아 큰 나무 아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NGO 단체와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본 조사 팀이 가와네, 아와쉬 전통 지역을 방문 했을 때, 추장은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발전 된 나라에서 온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 봤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한국이 과거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기록한 것과 같이 말이다. 아파르 족에게 교육은 그들의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여성 할례

아프리카의 여성을 괴롭히는 요소 중의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여성할례이다. 여성할례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자행되는 여성의 외부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여성할례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여성할례가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여성할례를 한다고 말한다. 여성할례가 자행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남성의 성적만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여성의 외부생식기를 잘라내면, 여성들이 성적욕구를 느끼지 않게 되고, 그것이 남성의 성적만족을 강화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성적욕구는 외부생식기와 상관이 없고, 호르몬의 작용에 상관이 있다. 아파르족과 같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이런 의식을 자행한다. 이들이 여성할례를 주장하는 세 번째 명목은 “위생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할례를 할 때, 비위생적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할례를 자행하는 일부 무슬림들은 여성할례가 이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코란에는 어느 곳에도 여성할례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오래된 토속신앙이나 전통관습과 관련이 깊은데, 이들은 여성할례가 여아들을 영적으로 정결케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한다.⁷¹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여성할례는 비위생적인 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수술을 할 때 여성의 음핵을 덮고 있는 부위의 피부를

⁷¹ 위 내용은 월드비전(<http://www.worldvision.or.kr/>)의 교육자료 중 “죽음의 의식, 여성할례(FGM)”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절개하는 것에서부터, 외부생식기의 거의 전부를 잘라낸 후 소변이 나올만큼만 남겨놓고 바늘로 꿰매버리는 심각한 경우까지 있다. 이런 수술을 할 때, 깨진 유리조각이나 녹슨 금속과 같은 비위생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감염(특히 파상풍)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또한 마취 없이 시술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 때문에 쇼크에 빠지거나 출혈 때문에 만성 빈혈에 걸리기도 한다. 또한 감염을 통한 만성합병증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성할례를 하게 되면 자연분만 시에 산모의 고통이 극에 달하며, 산모가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바늘로 꿰매어 봉합하는 수술까지 받은 산모가 분만을 할 때에, 아이가 제대로 나오지 못 해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성할례는 서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과 동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에티오피아도 여성할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여성할례비율이 75%~99%에 달한다.⁷² 요즈음에는 비위생적인 수술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통한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 의료인들을 통해 감염은 피하고 통증을 줄일지라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분만 시 여성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가 지적 하듯이 의료인에 의해 여성할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성할례가 인권법에 위배될 뿐 더러 장기적으로는 여성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여 유엔이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의료인에 의한 할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⁷³라고 월드비전의 한비아 팀장은 말한다.

월드비전과 같은 한국의 NGO나 국제기구에서도 여성할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슬람 학자들은 23일 카이로에서 열린 여성 할례 관련 국제회의에서 여성 할례를 하지 말 것을 모든 무슬림들에게 촉구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한다.⁷⁴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여성할례의 근절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도 FGC와 같은 NGO들이 여성할례를 멈추기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4. 열악한 위생과 보건

⁷² WHO 학생메뉴얼

⁷³ 월드비전(<http://www.worldvision.or.kr/>)의 교육자료 중 “죽음의 의식, 여성할례(FGM)” 중 월드비전 한비아 팀장의 글을 그대로 인용

⁷⁴ 출처: CGNTV 선교동향&간추린소식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vid=30584) 검색일:2009년2월 5일

1) 에이즈의 확산

에이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치사율도 높은 질병이다. 이것은 보통 잘못된 성 문화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부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문란하게 성관계를 갖다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도덕적인 교육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문란한 성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도 질병을 줄이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피임이나 에이즈 치료약 등을 통하여 이러한 질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에이즈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질병이지만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치사율이 높다. 이유는 이러한 질병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지 아닌 방지 속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에이즈는 이미 많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병원 시설 부족

에티오피아도 손꼽히는 후진국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NGO 활동과 원조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에티오피아도 그나마 공급받는 의료 혜택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몇몇 도시에만 몰리는 현실이다.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는 의과 대학을 가진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한국교회 재단에서 세운 명성병원의 예만 보더라도 병원비가 그 지역에 비해 워낙 비싸서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진료비만 평균 일일 노동자의 3~4일치니까 그 가격을 알만 하다. 시골에서는 이용률이 더 적다. 안 그래도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부족한데, 그 가격도 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비싸다. 중소도시에 사는 한 사역자의 부인이 아파서 클리닉을 찾아 갔는데 그 가격이 보통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곳의 서민은 웬만큼 아파서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거나 죽거나 하는 양자 길에 서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파르족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종족 자체가 수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수도 적어서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교육이나 의료 등의 혜택을 더욱 못 받고 있다. 이들은 위생 시설은 더욱 열악하다. 본 조사팀이 시골 지역에 갔을 때, 흙탕물이 옆에 줄줄 흐르고 있었는데, 동키가 와서 먹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물을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다. 이처럼 위생 관념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있어도 그러한 것을 챙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들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인터뷰하러 온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만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위의 질문에서도 보이듯이 이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고 외부의 도움이나, 개선의 필요성을 상기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NGO나 시민단체들에 도움이나 협조로 이들의 의료 시설을 개선해 가도록 해야 한다.

V. 아파르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⁷⁵

에티오피아의 선교역사는 4세기경으로 인도로 향하고 있었던 배가 난파하면서 살아난 생존자들이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전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프루멘티우스(Frumentius)와 아에데시우스(Aedesius)로 이들은 처음에 그 지역 왕의 신하로 부름 받아 왕을 섬기다, 기독교를 전파해도 된다는 왕의 허락을 받고 악숨(Aksum)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들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이집트로 건너가 선교사들을 더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알렉산드리아에 보낸다. 알렉산드리아의 아싸나시우스(Athanasius)는 이 편지를 받은 후, 프루멘티우스를 에티오피아의 주교(bishop)로 임명하게 된다. 프루멘티우스는 악숨으로 돌아와 악숨에 기독교 국가를 세웠고 그때부터 20세기까지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집트에서 보낸 바 된 주교들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이집트의 콕틱 교회(Coptic Church)는 비로 이러한 주교 임명권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에티오피아는 스스로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6세기에는 이집트 혹은 시리아에서 건너온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주의(Monasticism)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수도사들에 의해 당시 에티오피아 언어인 게에즈(Ge'ez)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바 있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에티오피아에 들어오면서 정교회를 카톨릭과 통합시키려는 압력이 있었으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카톨릭 교회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오게 된다.

20세기 이르러 카톨릭 및 개신교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에 들어와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6년도에 이

⁷⁵ Worldmap, <http://www.worldmap.org/> (검색일 2009년 2월 6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르러서 개신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개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탈리아 카톨릭과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또한 심해진 양상을 띄었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오늘날 개신 기독교 신자는 에티오피아 총 인구의 20% 에 이르고 있다.

아파르 종족은 이 가운데서도 무슬림의 신앙을 꾸준히 지켜왔으며, 오늘날 99.9%의 아파르 인들이 여전히 무슬림으로 남아 있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로 UN을 비롯한 적십자(Red Cross), 월드 비전(World Vision) 지부가 위치해 있으며, 이 외에도 700개가 넘는 종교 단체와 NGO가 활동 중이다. 국제 선교 단체로는 AIM(Africa Inland Mission), SIM(Serving In Mission) 등이 있으며, 한국 선교 단체로는 명성 교회에서 설립한 명성 병원(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이 의료, 교육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아파르 지역에도 오늘날 많은 NGO 단체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 수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활동 사역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파르 종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교 단체가 지하에서 비밀리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영적 상황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이다. 에티오피아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교인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외부와의 교류도 많지 않고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변질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성상을 숭배하는 대신 성화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속신앙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⁷⁶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⁷⁷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과거 가톨릭이 범했던 성상

⁷⁶ 월드맵 www.worldmap.org

⁷⁷ 에티오피아 단기 사역자 조기성(남, 29)와 2009년 1월 7일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승배를 거부하고 정교회이긴 하지만 오히려 복음에 가까운 종교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기도 한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기독교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만큼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⁷⁸ 우리 팀의 보고 들은 바와 생각을 나눠 봤을 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난 면이 있으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였다.

에티오피아 내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 물론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이지만, 이슬람을 믿는 종족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 모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하루에 5번씩 이슬람 기도인 아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온다. 그 중에 특히 아파르족은 100%가 무슬림인 종족으로서 이슬람의 영향력 안에 강하게 묶여 있다. 아파르족은 9세기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의 역사가 가장 깊은 종족 중 하나이다.⁷⁹ 그만큼 이슬람의 영에 묶여있지만, 우리 팀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모두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 않았으며, 이슬람을 열성적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개종시키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런 눈치를 주면 태도가 바뀌고 베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생활을 깰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2. 아파르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1) 교육

전통적 아파르 족의 생활을 살펴보면 위생적이지 않은 물을 마시며 병에 걸릴 경우 치료받기가 힘들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도 많

⁷⁸ 2009년 1월 5일 에티오피아 박수일 선교사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⁷⁹ 년도에 관한 출처 하나 달자

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사가 들어 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파르 인들은 자녀 교육의 대부분을 코란 교육에 의지 하고 있다 이다. 때문에 이슬람은 이들의 종교가 되었고 정체성이 되었고 생활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의 유입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⁸⁰

아파르 종족의 환경은 보고서 앞부분의 지리와 생활파트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다. 항상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며, 더운 기후까지 가지고 있다. 남쪽 아와쉬 강에 이르는 지역은 비교적 덜하지만 북쪽 다나킬 사막 지역은 과거 왕성한 화산활동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해면보다 116m나 낮아 연일 50도를 오르내리는 열기로 가득차 있다. 이 때문에 거칠고 용맹한 아파르 종족만이 이 곳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는 선교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외부와의 단절의 원인되고 있어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1) 종족의 성품

아파르 인들은 과거 적대적 부족을 죽이는 것이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매우 거칠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과거 소말리아와도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경 부근에서 전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이는 환경 역시 아파르 종족의 호전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다. 뜨거운 태양아래 오랜 시간 살아 왔고 부족한 물문제 등으로 인해 과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아파르 인들의 호전적인 성격은 이슬람의 과격함과 많이 유사함을 갖는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과는 반대되는 그들의 성품은 이슬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이슬람은 아파르의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모습을 갖게 하였다.

(2) 아파르의 공동체성

아파르 족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타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⁸⁰ <http://youngies.egloos.com/> ebs 세계테마기행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보인다. 공동체 내에서 개종을 할 경우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더 심하게는 가족에게까지 배척 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한다. 이 공동체 성으로 인해 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실정으로, 복음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3) 언어의 문제

언어의 장벽은 외부인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도시 지역의 아파르 인들은 아파르어(Afaric)와 함께 암하릭어(Amharic)어를 같이 사용하지만 전통 지역의 아파르 인들은 아파르어(Afaric)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암하릭어(Amharic)는 에티오피아 공용어로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 익히는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만 아파르어는 표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라틴 문자를 사용한다. 이런 언어의 장벽은 아파르어를 배우는 데 문제가 되어 선교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아파르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 수가 매우 부족하다. 반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같이 생활하고 선교를 할 사역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물론 종족의 성격상, 이슬람의 영향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도 선교가 어려운 요인들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일원이 되기 위해 중요한 아파르어를 배우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직접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선교사의 역량 부족, 기존의 선교활동의 부작용, 필요한 자원의 부족 등

3. 아파르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아파르 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아파르 족에게 물과 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러운 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들이 위생적인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질병을 가질 확률은 높여주고 왜 그들의 수명이 짧은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환경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서 한편으로는 부정적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파르 족에게 물질 선교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질병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아파르 족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아파르 족의 생활 방식은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요즘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전통 지역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아파르 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 지역과 달리 도시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타지에서 복음 접한 아파르 인들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통지역에서는 개종을 했을 경우 공동체에게 핍박을 받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 조금씩 의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현재 아파르의 공동체성은 여전히 복음의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2) 세계 및 한국 선교상황의 변화

에티오피아는 국가 생성 초기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어느새 이슬람 역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과거 20년 동안 기독교는 아예 독재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수히 체포되어 투옥 당했고, 더 심한 경우는 피살까지 당했다. 몇몇 교단과 공동체는 불법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세계가 기억할 정도의 대기근이 겹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인구의 18%인 1100만명이 개신교인 것으로 집계 되고 7개국 11개 단체에서 온 500여명의 해외 선교사, 51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3)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1) 물질 선교의 가능성⁸¹

아파르 종족이 지니고 있는 열악한 환경은 물질을 통한 선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위생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르 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보건 사업과 식수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반 유목 생활을

⁸¹ <http://www.makehopecity.com/> 본 자료는 세계도시라이브러리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하는 아파르 족에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행히 이들은 이동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동 패턴을 분석, 가장 효율적인 곳을 선정해 의료와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러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여성의 노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2) NGO 선교

전통 지역의 아파르 족은 외부인과 접촉하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호전적인 종족의 성격으로 인해 접촉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적고, 또 접촉을 한다고 해도 물, 의료, 의식주 문제로 인해 긴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의 소식이 그들 사이에 전해 지면서,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NGO단체들도 아파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가와네 지역도 이미 NGO단체가 방문했던 곳이었다. NGO단체는 아파르 내에서 낮은 여성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성할레와 같은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코란 이외의 다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들에게 학술적 교육을 가르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때문에 종족과 접촉이 용이한 NGO를 통한 선교가 기대된다. NGO단체의 성격 상 교육과 사업, 여러 방법으로 아파르 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종을 할 경우 공동체 내에서 쫓겨나고 가족과의 인연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들까지 생각한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이동 사역과 현지인 사역

아파르 인들은 전통적으로 반유목 생활하는 민족이다. 현재 도시화된 아파르 인들도 존재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아파르 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한다. 그리고 아파르 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언어의 측면만 보더라도 아파르어를 할 줄 알아야 공동체 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믿는 아파르 인을 제자 훈련해 선교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언어를 익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 완전히 전

통적인 지역에서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곳부터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교육 센터를 세워, 현지인에게는 기독교를, 외부 선교사님에게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버림 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4) 성공사례

현재까지 아파르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고 개종을 했을 경우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 본 조사팀이 아와쉬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웰데 선교사님께 듣기로, 하나님을 믿는 아파르 인들이 극히 드문 실정임에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녀 역시 공동체를 떠나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다. 웰데 선교사님의 방법은 그들의 재정적, 가정적 문제를 도와줘 친구가 돼 사역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였고 이 방법을 통해 현지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교회가 개척 됐음에도 아파르 인들은 없었다.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업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선교사님께서는 아파르와 같은 전통 지역에 학교를 세워 교육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고 계셨는데 아파르 종족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4. 아파르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아파르 종족의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의료 기술, 복지 제도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며 노력하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타 문화와의 접촉을 꺼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들 스스로 교류의 필요성을 알고 개방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하

여 비즈니스 선교를 추진할 만 하다. 또, NGO 선교를 추진할 만 하다. 우리가 아파르족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곳 주민이 우리가 의사냐고 물어봤다. 이들에겐 타 종족을 배척하는 전통보다는, 현재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삶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파르족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족이다. 따라서 주거지가 고정되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와 같은 고정 시설에서 교육 받기가 힘들고, 종족 내에서 코란을 배우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이나 NGO차원의 이동교육시설이 필요하다. 아파르족은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족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축을 기르기 위해 주로 집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역할 헌신자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삶을 공유해야 한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어린이 및 청소년

아파르족은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 아직 코란 교육을 받기 전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 미션 스쿨 등을 세워 이들을 섬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단 종족 내에서 이슬람 문화를 교육 받아 온 아이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종교 측면에서 접근하면 반발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다른 방면으로 접근하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점점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인지 이끌어내는 물밑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학교 시설에서는 암하릭어로 가르치는 곳이 많은데,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는 아파르족 아이들로서는 이질감을 느껴 적응을 못 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학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 지 조사하여 그 중간 지점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가축에게 풀을 먹이려고 들르는 곳쯤에 학교를 세울 수도 있다. 또한,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여 아예 함께 먹고 자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아니면 학교 자체가 종족과 함께 이동하는 체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파르족이 한 지역을 떠나면서 주거지들은 남겨 놓고 이동하는 것처럼, 학교도 여러 곳에 터만 남겨놓고 함께 이동하며 교육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현지인들과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 여성

아파르족 사회에서 남성은 현재 다수이고 주류이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며, 남성들의 가부장적 태도와 이슬람의 남성우월주의로 인해 갖은 박해와 고초를 겪고 있다. 특히, 여성할레라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학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풍조가 당연시 되고 있어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일깨움이 필요하다.

먼저 이들에게 부부 사역이 필요하다. 보통 여성사역만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여성이 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식을 갖게 되어도 가정이나 종족 내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도 오래 걸리지만 지위 상승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그러한 필요성을 동시에 알고 개선하기가 보다 빠르고 쉬울 것이다. 부부가 동역을 해야지 가정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종족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보통 부인들이 집에서 가사를 하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르족 남자들은 가축에게 풀을 먹이러 가서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으므로 시간을 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이미 외부의 문명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피임 방법과 같은 성 지식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좋다. 본능에 충실하고, 이슬람 교리상 신이 준 자식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많이 낳는 것을 선호하지만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일깨워주고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의 절제를 가르쳐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직업 교육 또한 필요하다.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만 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들도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능력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 배치에 힘써, 독립적인 경제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 청장년 및 노인

청장년들이 인생의 희망 없이 노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력이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들에게 비즈니스 사업을 추천한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아파르족이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몸의 필요를 채워져야 한다. 의료를 통해서 강해진 어른들은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비즈니스가 적합하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농업 선교

아주 척박하지 않은 땅에 거주하는 아파르족은 경작을 하고 있었다. 농업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농업을 좀 더 개선하여 좁은 땅에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아파르족은 물질이 부족하여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개선은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 너무 대량 생산시되어 물질주의로 가면 문제지만 종족이 너무 척박한 땅에 살아서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농업을 수단으로 이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2) 파트너쉽을 이용한 선교 (물질 선교)

모든 선교에는 연합이 중요하다. 현재 선교계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서로 연합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연합의 문제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계의 흐름을 반영하여 아파르족에게도 파트너쉽을 이용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조화시켜서 종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특히 에티오피아, 아파르족에게는 물질선교가 가능하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면을 채워주면서 다가가야 한다.

(3) 예술 학교

아파르족도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는

그 종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선교는 이러한 문화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위에, 그 문화에 적합한 복음을 꽃 피우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살리면서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발산시킬 수 있는 예술 학교를 세우면 좋다. 이 예술 학교는 예술에 재능은 있으나 그것을 발전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를 지역 문화센터처럼 개발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취미를 복돋울 수 있다.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르족의 종족 전통성이 조금 약해진 편이다. 다른 종족과 같이 어울려 살고 그러한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 특히 종교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아파르족 내에서 개종시 핍박을 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전도해서 그 가족 전체를 전도하는 것이 가능할 듯 하다. 혼자 개종하면 가족을 전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족 전체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종해서 혼자 외롭게 고립되지 않아도 되고 같이 개종함으로써 동역자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골 지역에서는 집단의 공동체 성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분리를 자초하는 개종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시에 있는 센터에서 개개인의 사역자를 파견하여 전도하는 센터 중심의 지역 전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센터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과 재정뿐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교회의 형태

무슬람이 개종 할 경우, 개종 후에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무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더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르족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케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험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개종한 아파르족을 전문적으로 사역하

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림으로써 이슬람교에서 느꼈던 공동체 느낌도 계속 가질 수 있고, 동역자도 얻고, 외롭지도 않고, 기독교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3) 현지 지도자 양성

무슬림 개종할 경우 종족 공동체에서 신뢰를 잃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먼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겠지만 이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그들을 양육하고 더불어 직업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들이 양육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체적인 직업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을 통해 아파르인 사역자와 이들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골 지역 개종자들은 아파르 지역에서 제자 양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센터를 세워서 그 곳에 데려와 제자 양육을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아파르 종족의 일반 현황과 오늘날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을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아파르 종족을 위한 선교 전략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에티오피아 아파르 종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그것은 그들이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는 반 유목민이라는 것과 무슬림이라는 사실이다. 반 유목민으로서의 아파르 종족의 이동 생활은 오늘날 그들의 가옥 구조, 음식, 의복 등 생활 양식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슬람의 코란 교육과 가르침은 아파르 종족의 사회적 규범과 그들의 의식구조 및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본 틀로서 작용하였다.

오늘날 그전보다 많은 수의 아파르 종족이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르 종족은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며, 전통적 삶의 양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된 삶의 방식과 타 민족과 문화 대한 배타적 태도는 그들을 에티오피아 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현대 문명의 이로운 혜택으로부터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시골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아파르 종족은 깨끗한 식수 조차 구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러운 물로 인한 각종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픈 곳이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나 의료 시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작은 질병에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외부 소식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동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은 정식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르 종족의 이러한 상황이 아파르 종족의 복음화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없을 때, 우물을 파 주고, 병들어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를 보내 주고, 한참 배울 나이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는 것은 어쩌면 부족함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 사상이나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보다 더 쉬운 복음 전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물질의 마련을 위해

한국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아파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아파르 종족의 복음화는 에티오피아 30% 무슬림의 복음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화는 곧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로 연결될 것이며,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는 동아프리카의 복음화와 영적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통한 동아프리카의 복음화가 아랍과 북아프리카, 더 나아가 아프리카 온 대륙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로 이어지길, 그 비전 가운데 이 보고서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및 일반논문

『선교지역연구보고서』, (CIAS 국제지역연구소, 2008), 제 3권, 2호
(2008년 가을) (통권 제 5호)

『에티오피아 개황』, (외교통상부, 2005. 12)

『The Role of Indigenous Institutions in Pastoral Livelihood
Strategies in Ethiopia』 (Ethiopian Economic Association)

웹사이트

기도24364, www.prayer24365.org

미국국무성, www.state.gov

서울신문, www.seoul.co.kr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한국컴패션, www.compassion.or.kr

APDA, www.apdaethiopia.org

CIA, www.cia.gov

Encyclopedia of the Nations, www.nationsencyclopedia.com

Inspirationalfilms, www.inspirationalfilms.org

Wikipedia, www.wikipedia.org

World Map, www.worldmap.org

Xplore360, www.xplore360.com

UNAIDS

단 타무랏 신부, 놀라운 생명력의 에티오피아